



# 도서관 진화 방향 및 해법 제시 ... 현업 종사자에 큰 도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도서관협회가 지난달 19일 코엑스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제7회 디지털도서관 컨퍼런스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새로운 정보유통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전국 도서관 및 업계 관계자 350여명이 참석,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글 신승철 기자 / 사진 이해성 기자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도서관협회가 주최한 제7회 디지털도서관 컨퍼런스가 지난달 19일 코엑스에서 열렸다.

도서관이 달라지고 있다. 낡은 건물, 먼지 쌓인 서가, 너털너털해진 책, 공부방. 몇년 전만 해도 도서관을 떠올릴 때 으레 머릿속에 그려졌던 풍경이었다. 노후한 건물에 시험, 취업준비에 바쁜 이용자들이 가득 메워지는 도서관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도서관은 분명히 변하고 있다. 더이상 변화에 아랑곳없는 무풍지대가 아니다.

도서관의 변화를 실감하려면 자료실로 가보면 된다. 도서관의 기본 자료는 아직 책이지만 요즘 도서관은 디지털로 재무장하고

있다. 예전의 '보여주기식'이었던 시청각실과는 차원이 다르다. 널찍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비디오 테이프, DVD, 음악CD, 비디오CD, e북 등의 멀티미디어를 즐기도록 준비해놨다. 자료도 수시로 업데이트해서 최신 상태를 유지한다.

이렇듯 최근의 도서관은 디지털시대에 발맞춰 정보유통 방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실감케 한다. 하지만 넉넉지 못한 예산 및 부족한 전담인력은 여전히 도서관의 디지털화를 느리게 만들고 있는 장애물이다. 도서관 책임자들이 대거 참석한 이번 행사에는 학계와 업계의 각종 연구와 실질적인 구축사례가 소개돼 자신이 근무하는 도서관의 현재를 가늠하고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 도서관 진화방향 제시

현순주 한국정보통신대학교 교수의 기초연설로 시작된 이번 행사는 두 개의 기초연설과 해외초청 강연, 그리고 디지털 환경 구축과 디지털 기술 변화라는 주제로 나눠 발표가 진행됐다.

현 교수는 '디지털도서관에서의 컨텍스트 인식(Context Awareness in Digital Library)'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컨텍스트 모델과 분류학을 제시하며 컨텍스트 관리, 디지털도서관 애플리케이션 등에 대해 설명하고 유비쿼터스 환경에 맞춰 도서관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야 되는 지 제시했다.

이어 원영희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전무이사는 개최사를

통해 “90년 도서관정보 화사업이 시작된 이후 최근에는 디지털 아카이빙(Archiving), 데이터 품질관리 등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도서관의 현안과 미래에 대한 해법을 제시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상완 한국도서관협회 부회장은 “디지털도서관은 세계선진국들 사이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으며 특히 대학도서관들이 그 프로젝트들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의 도서관은 아직

갈길이 멀며, 이와 같은 관련 컨퍼런스가 자주 개최돼 지식정보화 시대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축하했다.

각 세션별 발표시간을 통해 최재황 경북대학교 교수는 ‘학술커뮤니케이션의 변화와 Open Access’라는 주제 아래 학술지의 특징,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변화와 과정, 그리고 새로운 출판문화에 대한 강연을 가졌다. 최 교수는 “상업출판사의 개입으로 연구결과의 독점성을 시장경제 논리에 도입했고, 이에 따라 학술지가격이 상승하면서 도서관의 학술지 구독취소, 기관의 중복비용지출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면서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위기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모든 연구논문 저자의 희망은 인터넷을 통한 모든 분야, 모든 논문의 상호연결 및 접근”이라고 전제하고 ‘Open Access’를 위한 방안과 각종 솔루션에 대해 소개했다.

서혜란 신라대학교 교수는 “디지털 유산의 보존이란 디지털정보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 영속적인 가치와 중요성 때문에 현재 및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유네스코, IIPC(International Internet Preservation Consortium), 국립중앙도서관, 다음세대재단, PANDORA, Kulturarw3 등 국내외 디지털유산 보존 활동에 대해 소개했다.

### 실질적 방안 제시 ‘호응’

이번 컨퍼런스에는 퓨처인포넛, 드림투리얼리티, 한글과컴퓨터, 쓰리웨어, 존앤존 등 관련 업체들도 대거 참여, 자사 제품이나 솔루션의 구축사례를 알리는 등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뜻



▲ 제7회 디지털도서관 컨퍼런스에 참석한 인사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으로부터 민동필 서울대학교 교수, 양병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분원장, 원영희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전무이사, 한상완 한국도서관협회 부회장, 현순주 한국정보통신대학교 교수.

깊은 자리가 되기도 했다. 또한 실질적인 구축사례가 상세히 소개돼 도서관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퓨처인포넛측은 OAI(Open Archives Initiative)에 대해 설명하고, ‘K·TOWER OASS’가 국내 유일의 OAI 검색서버 솔루션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이 솔루션은 공개 아카이브의 디지털콘텐츠를 수집 및 검색해 연구 및 학술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대부분

의 아카이브에서는 메타데이터뿐 아니라 다양한 포맷의 원문도 함께 제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드림투리얼리티와 한글과컴퓨터측은 ‘CSD(Compact Shared Document)’ 포맷을 소개했다. 뷰어와 폰트가 포함된 CSD의 도입은 전세계 어디서나,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접속 환경과 디바이스에 관계없이 자료의 원문을 그대로 조회할 수 있는 글로벌 유니쿼터스 디지털도서관 구현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게 양사의 설명이다.

한국문학도서관측은 지난 200년 11월 6억7,000만원의 자본금을 통해 설립, 현재 입력 도서 1만5,000권, 회원 소유 20만원권 전송권을 확보한 상태라고 소개했다. 특히 관리자와 회원이 함께 자료를 입력하고 수정하며 전송 수익 발생시 40%를 배당하는 자가 발전식 도서관이라고 강조하고, 올해부터 UCLA, 하와이대학, 빅토리아대학, 함브르그대학, 본대학 등 외국대학 한국어문학과에 한국문학자료를 제공기로 하는 협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김진숙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정보서비스팀장은 “학교 디지털도서관의 방향이 학습 정보센터로서의 하이브리드 도서관으로 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전자도서 서비스 현황과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조소연 한국영상자료원 팀장은 ‘영상자료 디지털아카이빙 전략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디지털 아카이빙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KBS, SBS, MBC, 한국방송영상진흥원 등 국내 디지털방송 아카이브 구축사례 및 구축방안을 설명했다. 